

스피노자에서의 픽션 개념

박기순
(서울시립대 ○○과)

1. 서론: 스피노자에서 가능한 것의 문제

스피노자의 철학체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현실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능성(l'intelligibilité intégrale du réel)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식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원리는, 신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적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고 사물들을 생산한다는 형이상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자유의지를 신의 본성으로 간주하는 신학적 전통, 특히 옥캄(William of Ockham)의 주의주의 신학의 전통과 그 영향아래 있는 홉스와 데카르트 등과 같은 동시대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스피노자가 전통과 그리고 자신의 동시대 철학자들과 근원적으로 갈라서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비판과 전복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이러한 비판은 그 귀결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만큼 많은 설명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 하나의 예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가능'(le possible)에 대한 배제에서 찾을 수 있다. 가능에 대한 믿음은 뿌리 깊은 우리의 일상적 믿음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언어는 가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있다(예를 들면 “나는 걸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따라서 신학자들이 신의 절대적 역량(potentia absoluta Dei)을 사고할 때, 그 역량을 가능성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 즉 신은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가능 세계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스피노자의 필연성의 형이상학은 역량을 이렇게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성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믿음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피노자의 논리에 따르면, 가능성으로서의 능력은 허구이다. 예를 들면, 스피노자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누가 자신이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제로 걸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그는 단지 '걸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걷고 있지 않거나 걷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없다.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 여러 가능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내가 걸을 수도 있고 걷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현재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피노자에게 가능성 개념은 주의주의 신학적 전통의 주춧돌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비판은 그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¹⁾.

1) 홉스의 신학은 가능성 개념에 기초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난다. 홉스는 신의 역량은 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임을 주장함으로써, 즉 신의 역량을 신의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신이 현재의 자연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그는 스피노자처럼 자연의 질서의 필연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와는 다르게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의 자유의지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홉스의 신학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사고하는 데서 두 철학자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홉스에게 인간의 역량은 신의 역량에 비해 아주 작은 역량으로서, 의지로서의 신의 역량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역량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따라서 자기자신에서가 아니라 신의 의지와 목적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홉스에게 자연의 필연성 논제는, 그것이 의지의 산물인 한에서, 인간에게 목적론적 세계관을 부과한다. 반면

신이 그 무한한 역량으로 규정된다면, 이 역량에 따른 신의 작용은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E I P32Cor)²⁾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법칙들에 따라 이루어지며, 따라서 신은 오직 하나의 세계를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스피노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E I P33 S1). 가능한 것, 혹은 우연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것이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우연적인 것이라고 부른다(E IV Defs 3, 4). 이렇게 가능한 것과 우연적인 것은 그것들을 존재케 하는 원인들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과 우연의 관념이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엇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 혹은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은 인식의 한계를 반드시 함축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예술적 활동, 윤리적 행위, 정치적 활동 등이 가능성의 관념을 배제하고는 사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논제를 주장하고 있는 스피노자 철학에 정당하게 던져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하에서 이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으로서 그의 픽션 개념을 검토하고, 그것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픽션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시한다. 신은 픽션을 갖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픽션은 인간의 유한성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 활동의 고유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픽션이 인간 인식의 한계로부터 기원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적합한 관념은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픽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스피노자 철학에서 밝히고자 한다³⁾.

2.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서의 픽션

2. 1. 혼동된 관념으로 규정된 픽션 개념의 난점

픽션에 대한 스피노자의 성찰은 『지성개선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지성개선론』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픽션 이론은 가장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에, 스피노자에게 신과 인간의 역량은 모두 동일한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량은 신의 역량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며, 그것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즉 신의 역량과 인간의 역량 사이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자유의지와 자연의 필연성에 관한 홉즈의 논의는 브람홀(Bramhall)과의 논쟁을 담고 있는 『자유, 필연성, 우연에 관한 질문들』(*Les questions concernant la liberté, la nécessité et le hasard*, trad. par L. Foisneau et F. Perronin, Paris: Vr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이하에서 『윤리학』의 인용은 ‘E’다음에 부, 정리(P), 증명(D), 따름정리(Cor), 주석(S), 정의(Def) 등을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지성개선론』의 경우에는 ‘TIE’ 다음에 브루더의 구분에 따라 문단을 표시하고, 『신학정치론』은 ‘TTP’로 표시한 후, 뒤에 장을 표기한다. 데카르트 저작의 경우는 아당과 탄느리판(AT)을 인용한다. 스피노자의 경우,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윤리학』을 제외한 다른 저작들의 경우, 게파르트판(G로 표시)과 켈리의 영역판(C로 표시)을 인용한다.
- 3) 스피노자의 픽션 개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또 다른 목표는 스피노자에서의 픽션 개념을 해명함으로써 그것이 스피노자 철학체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로 스피노자는 이 주제에 스스로가 자신의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제1부의 대부분 (§ 52-65)을 할애하고 있으며, 다른 혼동된 관념들(ideae confusae) 즉 회의적 관념(idea dubia)이나 거짓 관념(idea falsa)을 다룰 때에도, 종종 픽션에 대한 자신의 설명들에 준거하곤 한다. 요컨대 『지성개선론』에서 픽션(idea ficta)은 혼동된 관념으로서의 상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관념으로 제시된다.

『지성개선론』에 나타난 스피노자의 논변은 일견 매우 단순해 보인다. 그의 일관된 주장은, 우리가 사물의 본성과 그것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 픽션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픽션은 크게 두 가지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사물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실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무한히 큰 파리(la mouche infinie)와 사각모양의 영혼(l'âme carrée)과 같은 픽션은 우리가 물체의 본성이나 정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구성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무가 말을 한다든가, 사람이 갑자기 돌이나 샘물로 변한다든가, 유령이 거울에 나타나는 등의 픽션들 또한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요컨대 "인간 정신은 이해하는 것은 적지만 많은 것을 지각하면 할수록 픽션을 구성하게 되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TIE, § 58).

같은 것을 우리는 실존에 관계된 픽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필연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픽션도 구성할 수 없다. 필연적인 실존을 함축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의 비존재를 상상할 수 없으며, 네모난 원과 같은 모순적인 것의 존재 또한 같은 이유에서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실존과 비실존이 그것의 본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유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다른 외적 원인들에 자신의 실존이 의존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스피노자는 같은 논리를 적용시킨다. 즉 우리가 한 사물의 실존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실존에 대해서 픽션을 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원인들을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스피노자에게, 픽션이 있다면 그것은 인식의 결여로부터 온 것이다. 픽션이 이렇게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⁴⁾, 그것은 거짓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는가? 아니라면, 즉 픽션이 단순한 거짓관념과 구별된다면, 픽션의 고유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은 일견 문제를 해명하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르면,

거짓 관념은 동의(assentiment)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즉 [...] 어떤 표상들이 주어질 때, 픽션에서처럼, 그 표상들이 외부 사물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픽션과 거짓 관념 사이에는 다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TIE, § 66).

이 언급에 따르면, 픽션과 거짓 관념의 차이는 전자는 내부로부터, 즉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것인데 반해, 후자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짓 관념은 그것이 외부 사물에 상응한다는 긍정, 즉 표상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픽션은 그러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픽션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허구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픽션을 여전히

4) "자연을 인식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인간은 더욱 더 쉽게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수의 픽션을 형성할 수 있다" (TIE, § 58).

혼동된 관념으로 볼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픽션을 혼동된 관념의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위의 설명에 따르면 픽션에는 일종의 명석함이 존재한다. 여기에 『지성개선론』의 픽션 이론이 갖는 난점이 존재한다. 스피노자의 논변을 그대로 따른다면, 픽션은 혼동된 관념이면서 동시에 명석한 관념이다⁵⁾.

이러한 난점은 『지성개선론』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인가? 픽션을 혼동된 관념으로 전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적어도 스피노자가 픽션을 혼동된 관념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고유성을 거짓 관념과 구분하려는 시도는, 위의 난점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원리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식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부터 픽션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성개선론』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2. 픽션은 새로운 것의 자의적 창조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스피노자는 우리가 사물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픽션을 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인식과 픽션의 양립 불가능성을 정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가 이렇게 언뜻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겨냥하고 있는 것은 픽션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이다. “사물들이 우리가 꾸며낸 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명석하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속적으로 (vulgo) 꾸며졌다고(fingi) 말해지는 경우들”(TIE, § 56)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픽션은, 스피노자의 위의 주장과는 반대로, 인식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이러한 통속적 이해와 단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이해의 어떤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스피노자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 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스피노자가 생각한 픽션의 고유성과 기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가 통속적으로 사람들이 픽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비록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나는 어떤 사람에게 지구는 반구이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말할 수 있다 (TIE, § 56). 이 예는 곧바로 우리에게 스피노자가 『소론』과 『윤리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짓말’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⁶⁾. 이 현상에 대한 논의는 의지작용이 관념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에 대한 가능한 반론의 예로 거론되고 있는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예를 내세워 스피노자의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관념과 언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의 예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는 독립된 능력으로서의 의지 개념을 비판하는 맥락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관념과 언어의 괴리를 단순한 거짓말로써가 아니라 고유한 위상을

5) F. Mignini(1979), “Per la datazione e l'interpretazione del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di Spinoza”, in *La Cultura*, anno xvii, 135 참조. 『지성개선론』의 픽션 개념이 갖는 이러한 난점은, 이 초기 저작이 고유한 의미로서의 스피노자주의와 거리가 먼 저작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 저작이 『소론』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스피노자의 최초 저작이라는 주장에 하나의 근거로 이 이탈리아 주석가에게 사용된다. 미니니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스피노자 저작들의 연기기적 순서, 즉 『소론』 - 『지성개선론』의 순서를 뒤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지성개선론』에 대한 해석은, 일부 주석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저작의 내용을 무리하게 데카르트와 베이컨에 접근시키고 있다. 픽션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론』, 2부, 16장, 문단 6(C I, 124)과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을 참조.

찾는 픽션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 통속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픽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불가능성이나 어떤 필연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꾸며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구는 둥글지 않다고 말할 때, 나는 나의 기억으로부터 이전에 내가 아마도 범했던 오류, 혹은 내가 빠질 수 있었던 오류를 상기한 다음, 그것에 대해 픽션을 구성하거나 혹은 내가 말하는 사람 또한 동일한 오류에 빠져있거나 혹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TIE, § 56).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도 거짓말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념과 언어의 차이가 픽션의 기초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의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현실이다. 스피노자가 들고 있는 예는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미 지구가 둥글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 구조에는 지금도 지구는 둥글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나타난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⁷⁾. 그리고 이 괴리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관념과 언어의 차이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물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의 경험, 우리의 지각에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의 논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비록 원인과 본질에 대한 인식은 아니지만 삶의 쓰임(usus vitae)에 유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인식은 삶에 유용한 인식이기 때문에, 삶의 쓰임의 논리에 따라 구성되는 언어의 구성원리가 되며, 따라서 언어는 적합한 인식과는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⁸⁾. 스피노자는 언어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적합한 인식과의 괴리를 픽션의 한 예로 간주하고 있다. 요컨대, 언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픽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적합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차원에서 달리 표현하는 것은 언어에 고유한,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지각 구조에 고유한 어떤 필연성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필연성으로부터 또 다른 필연성이 나온다. 사물에 대해 언어의 공통적 쓰임에 맞게 말하고 설명해야 할 필연성이 그것이다. 내가 어린 아이에게 지구는 둥글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말해야 할 필연성은, 그 아이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지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학정치론』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만들고 보존하는 대중의 이해와 정서에 적합하게(ad captum vulgi) 사물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실제의 역사라기보다는 신의 가르침인 정의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7) 상상 혹은 경험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은 『윤리학』에서도 나타난다. 태양이 우리에게 실제거리보다 더 가깝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거리와 그렇게 가깝게 나타나는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학』 2부, 정리 35, 주석과 4부, 정리 1, 주석을 참조.

8) 스피노자는 『윤리학』 3부에서 감정들을 세 개의 기초 감정, 즉 욕망, 기쁨, 슬픔으로부터 다른 감정들을 연역해 내면서,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 경우 (E III P52S), 그리고 동일한 원인을 갖는 감정이 일상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갖는 경우(E III Def. affectuum, 33, Expl)를 언급한다. 이러한 사실은 “감정들의 이름이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그것들의 통속적 쓰임새(vulgi usus)에 기초해 만들어졌”(E III P52S)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P.-F. Moreau(1994), *Spinoza. L'expérience et l'éternité*, Paris: PUF, 327-31 참조.

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야기라는 형식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이해와 정서에 적합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독특한 것들에 의해서만 영향 받기 때문이다 (TIE, § 82)⁹⁾.

결국, 앞에서 제시된 첫 번째 예를 통해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픽션이 의미 있게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자의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픽션은 상상, 특히 독특한 것들에 대한 상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상은, 사태의 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한에서, 부적합한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는 성서의 이야기는, 실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무지자로서 즉 자유롭게 않게 태어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선악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인식을 '대중의 정서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구체적인 이야기이다¹⁰⁾. 따라서 아담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긴 하지만, 부적합한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픽션은 혼동된 관념은 아니지만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픽션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예를 들면 아담의 이야기를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즉 그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영원한 진리가 아닌 사실적 진리에 해당하는 사물들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적합한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인간은 신과 다르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픽션은 인간 인식의 한계, 즉 가능성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유한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혼동된 관념의 표현이 아닌 한에서, 픽션은 인간의 인식 역량의 발현이기도 하다. 요컨대, 픽션은 신의 합리적 인식 작용과 다른 인간 고유의 합리적 인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가 들고 있는 두 번째 예는 그의 픽션 개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지 않는 가정들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양초가 상상의 공간에서, 즉 어떤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타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정신이 그 자체에서 바라본 양초에만 오직 전념하기 위해, 그리고 양초는 자신을 파괴하는 원인을 자신 안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9)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억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강화될 수 있다. 하나는 지성의 힘에 의해서이다. 이해 가능한 것은 보다 더 잘 우리의 기억에 간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립된 단어들 무질서하게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기가 힘들지만, 동일한 단어들 이야기(narratio)의 질서 하에 주어지면, 기억하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지성의 힘의 도움 없이, 상상의 힘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특한 것들에 대한 상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보다는 잘 기억에 남는 독특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관념을 더 쉽게 기억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성개선론』, 문단 81과 82를 참조할 것.

10) 스피노자는 『윤리학』, 4부, 정리 68에서 "인간이 만약 자유롭게 태어났다면, 그는 자유롭게 때문에 어떤 선악의 개념도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 뒤, 이어지는 주석에서 성서의 아담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11) "우리의 외부에 있는 독특한 사물들의 지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부적합한 인식만을 가질 수 있다" (E, II, P31).

주위의 물체들을 사유로부터 추상할 뿐이다”(TIE, § 57). 이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이라는 의미에서는 상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의 예와는 다르게, 우리의 지각구조에 의존해 있는 상상의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픽션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는 철학적, 과학적, 예술적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지성의 힘을 표현한다. 이렇게 구성된 픽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구체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다.

스피노자 자신이 『지성개선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픽션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올바른 정의는 그것의 작용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한 예로서 구(globe)에 대한 발생적 정의를 제시한다: 구는 반원을 지름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생긴 도형이다. 그런데, 스피노자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구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구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을, 즉 중앙을 중심으로 반원이 회전하고, 그리고 그 회전으로부터 구가 형성된 것처럼 자의적으로 꾸며낸 것이다(fingo ad libitum)”(TIE, § 72).

스피노자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픽션에는 과학적 ‘가설’ 같은 것 또한 포함된다(TIE § 57, n).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설정하는 가설은, 그것이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획득하는 한에서, 비록 꾸며낸 것이긴 하지만 지성의 역량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¹²⁾. 비록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예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술을 이러한 종류의 픽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과학과 예술을 합리적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로운 활동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이 예를 통해서 결국 스피노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비록 꾸며낸 것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물들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픽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참된 픽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픽션이 그 본성에 의해서 참인 경우에, 정신이 그것을 주목하여 이해하고 그로부터 그것의 귀결을 올바른 질서에 따라 연역해 낸다면, 정신은 어떤 침해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전하게 될 것이다”(TIE, § 61).

이러한 종류의 픽션 또한 인간에게 고유한 인식 작용이라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상상적 공간에서 타고 있는 양초나 회전을 통한 구의 형성과 같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 즉 불가능한 것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과학적 가설과 같은 가능한 것에 관련된 것이든, 픽션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의 구성을 통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신의 인식과는 전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픽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지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적합한 인식의 표현이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 지성의 고유한 표현양태인 것이다.

이 두 예를 통해서 스피노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통속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픽션 개념이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픽션에는 두 가지 관념이 존재한다. 픽션은 자의적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관념과 픽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픽션을 새로운 어떤 것의 자의적인 창조로 이해한다. 스피노자는 먼저, 픽션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스피노자가 독립된 능력으로서의 의지를 자신의 철학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이해될 수

12) 여기에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픽션이론을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사유와 근접시킬 수 있다. 바슐라르는 수학에 의해서 구성되는 가설이 현대 과학적 활동에서 갖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있다. 『윤리학』에서 보다 명료하게 증명되고 있는 이 원리는 『지성개선론』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¹³⁾. 특히 스피노자는 특별히 문단 59-60을 픽션이 자유의지에 의한 창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사람들은 픽션은 어떤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의지에 의해 긍정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픽션은 지속하면서 이제 다른 픽션들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¹⁴⁾.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들의 주장이 자기 모순적이라고 반박한다. 픽션이 의지에 의해 창조되고, 의지에 의해 긍정되었다고 말한 뒤, 이제는 그 픽션과 다른 방식으로 더 이상 사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초기에 설정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논변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픽션은 다른 픽션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조응하는 다른 비합리적인 것들 또한 긍정하게끔 강제한다¹⁵⁾. 요컨대, 자의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픽션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사유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픽션이 자의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픽션이 어떤 강제력이 있고, 우리의 사유를 결정짓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될 수 없다.

픽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피노자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그에 따르면, “픽션은 어떤 새로운 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정신에 어떤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TIE, § 57). 새로운 것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급진적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상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 사물들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감각들과 관념들을 창조할 수 있다”(TIE, § 60)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미지들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의 이 능력을 데카르트는 상상력(l'imagination)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상상력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적어도 데카르트적 의미에서는 그러하다. 데카르트가 새로운 이미지들의 창조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내어 그것들을 혼동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적 의미의 창조를 부정할 때, 일상적 의미로서의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창조 활동 또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이미지들로 작업을 하고,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조할 때, 엄격히 말해 그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이 작업하고 있다 점이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의 창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창조라는 관념은 자의성과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자연 법칙들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⁶⁾.

13) 문단 34에 첨가된 각주에서 우리는 『윤리학』에서 후에 나타나게 될 것과 동일한 정식화를 볼 수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성개선론』의 많은 각주들은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각주가 정확히 언제 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14) “아마도 사람들은, 픽션에 중지부를 찍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TIE, 문단 59).

15) 베르나르 루세는 이 논변에서 스피노자가 제시한 잘 알려진 문제, 즉 약속, 계약, 참여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발견한다. 우리는 약속과 계약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것의 모든 조항들을 따라야 하지만, 그 약속과 계약을 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Spinoza(1992),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établissement du texte, traduction et commentaires* par B. Rousset, Paris: J. Vrin, 298).

16) 새로움과 이탈의 이러한 연관에 대해서는 ‘기적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신학정치론』, 6장을 참조할 것.

결국, 통속적으로 우리가 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부적합한 관념, 즉 이미지들의 혼동된 결합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물들의 본성에 상응하여 구성되어진 적합한 관념을 지시한다¹⁷⁾. 그런데, 픽션을 단순히 혼동된 관념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픽션의 고유성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픽션을 혼동된 관념이라고 전제하는 문제들 하에서 그것을 거짓 관념과 구별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픽션의 고유성은, 후자의 의미로 이해된 픽션에서만, 즉 사물에 대한 이해로부터 구성된 픽션에서만 드러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픽션만이, 스피노자가 주장한대로, 그 것이 꾸며진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원인을 자신 안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픽션이 단순히 적합한 관념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픽션은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적합한 관념과도 또한 구별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강조했듯이, 픽션은 유한한 인간에게 고유한 인식 양태라고 할 수 있다.

3. 상상과 픽션

스피노자는 자신의 완성된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학』에서는 픽션에 관한 독립적인 논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지성개선론』에서 픽션, 의심스러운 관념, 거짓 관념으로 나누어 고찰했던 것을 『윤리학』은 제1종의 인식으로서의 상상(imaginatio)이라는 단일한 개념 하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윤리학』에서 스피노자가 이해하고 있는 픽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상상이란 외부 사물들의 작용에 의해 갖게 되는 이미지들을 사유하는 것으로서, 외부 사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부에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¹⁸⁾. 인간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으로서 이 상상은 외부 사물의 본성을 지시한다보기보다는 인간 신체의 구성상태(constitutio)를 지시하기 때문에 (E II P16 Cor2), 스피노자는 그것을 부적합한 관념으로, 즉 제1종의 인식으로 규정한다 (E II P40S2).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동시에 그것이 현존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 경우에도 이 상상은 부적합한 관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스피노자는 상상에 대해 정의를 내린 뒤 곧바로 상상한다는 것 자체는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스피노자에 따르면, 상상이 오류가 되는 것은,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되고 있는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그 상상에 부재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E II P17S). 다시 말하면, 한 사물의 현존을 표상하는 상상이 그것의 현존을 배제하는 관념과 결합된다면, 그 상상은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념(idea)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데카르트는 관념을 두 종류로, 즉 순수 관념 혹은 사물들의 이미지와 의지

17) 실제로 스피노자는 거짓 픽션(falsa fictio)과 구별되는 참된 픽션(vera fictio)을 인정한다 (TIE, § 61).

18) “우리는 인간 신체의 변용들을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에 대한 관념은 외부 사물들을 우리에게 마치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한다” (E II P17S);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일단 변용되면, 비록 이 외부 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인간 정신은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 II P17Cor).

19) “상상은 그 자체로 보면, 어떤 오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인간 정신은 상상한다는 것에 의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E II P17S).

혹은 판단으로 나눈다²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지성을 의지와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류를 오직 의지에만 관련시킴으로써 지성 자체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표상으로서의 관념 그 자체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참과 거짓은 그 표상으로서의 관념을 넘어서 의지가 무엇을 긍정할 때 일어난다.

스피노자는 먼저 관념과 의지작용(volitio)의 이러한 구분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에는 한 관념이 그것이 관념인 한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지작용 외의 어떤 의지작용, 즉 긍정이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 II P49). 다시 말하면, 스피노자에게서 어떤 관념을 갖는다 함은 그 관념을 긍정하는 것이다. 관념은 곧 긍정인 것이다²²⁾. 스피노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윤리학』 2부 마지막 주석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다. 한 어린아이가 날개 달린 말을 상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날개 달린 말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말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날개 달린 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날개 달린 말을 지각한다는 것이 날개 달린 말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날개 달린 말을 상상하고 그것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오류인가 그렇지 않은가? 앞에서 살펴본 논리에 따르면, 어린 아이의 상상에 그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어린 아이의 상상은 오류이다. 그러나 날개 달린 말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념의 부재는 보다 엄밀한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것의 존재를 긍정하는 다른 관념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어떤 것의 배제(혹은 부재)는 다른 어떤 것과의 연결의 이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관념이 자신 안에 긍정이나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은, 모든 관념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다른 관념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에게 모든 관념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고립된 관념(l'idée isolée)은 존재하지 않는다²³⁾. 관념의 자기 긍정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관념, 즉 자신의 원인을 구성하는 관념과의 결합을 요청하며, 자신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의 배제를 함축한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원리, 즉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을 부정한다는 존재 일반의 논리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상이 오류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이미지에 대한 관

20) 『성찰』, III, AT VII, p. 37, l. 3-12.

21)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적어도 이 점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올덴부르크의 질문에, 스피노자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중의 하나인 오류의 원인에 대한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베이컨은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단순히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그는 지성이 그 본성상 속을 수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베이컨의 기술하고 있는 오류의 원인들은 데카르트가 언급한 유일한 원인, 즉 의지는 지성보다 더 자유롭고 폭넓다는 사실로 환원되는 것들이다 (「편지 2, 올덴부르크에게」, G IV, 7-9; C I, 164-68 참조).

22) 스피노자는, 관념, 이미지 그리고 언어를 엄밀히 구분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관념을 말없는 그림(les peintures muettes)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관념은 그것이 관념이 한에서 긍정 혹은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참조).

23) 스피노자에게 다른 관념과 결합되지 않는 관념이란 감각(sensatio)에 불과하다 (TIE, § 78). 스피노자가 일부 스피노자 주석가들이 편이상 부르고 있는 평행론(le parallélisme)을 “관념들의 '질서와 연쇄'는 사물들의 '질서와 연쇄'와 동일하다”(E II P7) (강조는 필자)라는 표현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평행론은 고립된 사물과 고립된 관념의 일치가 아니라 그 질서와 연쇄의 동일성이다.

념으로서의 상상이 어떤 논리에 따라 다른 관념들과 연결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즉 관념들의 연쇄(concatenatio idearum)가 신체들의 우연적 만남²⁵⁾의 연쇄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상상은 부적합한 관념으로서 제1종의 인식이 되며, 반대로 관념들의 연쇄가 지성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정신은 적합한 인식을 갖게 된다 (E II P18S). 다시 말하면, 상상은 부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적합한 인식이 된다. 그리고 이런 한에서, 상상력(potentia imaginandi)은 정신의 결함(vitium)이 아니라 덕목(virtus)인 것이다²⁶⁾.

이렇게 결함이 아닌 덕목으로 이해되는 상상이 바로 픽션이다. 픽션은 적합한 관념으로서의 상상이다. 즉 픽션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실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상상의 능력을 ‘자유로운 상상력’(imaginandi facultas libera)으로 부른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이미지들의 연쇄가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사물들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지성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어떤 이유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지성개선론』에서 해명한 바 있는 픽션 개념의 고유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먼저 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E I Def7)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은 외부 사물들의 인과적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들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사물들의 필연적 인과법칙에 기초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즉 인간이 외부사물들의 법칙에 따라 행위할 때, 인간의 본성은 외부 사물과 합치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때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해진다. 요컨대, 인간에게 자유란 사물들에 대한, 따라서 사물들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픽션이 사물에 대한 합

24) 스피노자가 상상이 그 자체로는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베네트의 주장대로 스피노자의 잘못된 전제, 즉 상상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리고 필연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오류일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념은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피노자의 보다 더 근원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J. Bennett(1986), Spinoza sur l'erreur, *Studia Spinozana*, 2, 197-217 참조).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차이를 규정할 수 있다. 두 철학자 모두에게 오류는 긍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이 갈라지는 지점은, 이 긍정이 설명되는 방식에 있다. 즉 데카르트에게 긍정이 지성과 구별되는 정신의 별도의 능력, 즉 의지의 작용이라면, 스피노자에게 그것은 관념 자체 안에 내재해 있는 작용이며, 그 작용의 구체적 의미는 연쇄이다.

25)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피노자는 우연과 가능성을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신에게 모든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신이 아닌 우리에게, 즉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한 우리에게, 외부 사무들과의 만남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contingere)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26)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동시에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sciret), 물론 이 상상력은 정신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장점으로 간주될 것이다” (E II P17S). 스피노자가 이 문장을 현재의 비현실성을 함축하는 접속법 반과거로 쓰고 있다는 점은, 주석가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한 사물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앞에서 스피노자는 분명히 상상은 그 자체로 오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접속법 반과거로 쓰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부적합한 상상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리적 인식에 기초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다고 정당하게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지성개선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픽션개념, 즉 픽션을 ‘자의적’ 창조물로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둘째, 왜 상상력인가?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다. 픽션은 꾸며진 것으로서,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한에서, 픽션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이라는 스피노자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는 픽션 개념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성개선론』에서는 한편으로는 난점으로 나타났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던 픽션 개념의 고유성을, ‘자유로운 상상력’ 개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상상 개념을 몇 가지 특징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고찰하였던 『지성개선론』에서와는 달리 『윤리학』에서는 상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상상 그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4. 현실의 구성 원리로서의 픽션

현존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관념의 문제는 이미 『윤리학』 2부, 정리 8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정리에 따르면,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관념은 신의 무한 관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관념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념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스피노자에게 관념의 원인은 다른 관념이다 (E II P5; II P9). 즉 관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스피노자는 관념의 생산을 설명한다²⁷⁾. 앞에서 우리는 스피노자 철학에서 고립된 관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한 관념은 다른 관념들과의 연쇄를 함축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관념의 생성은 바로 이러한 연쇄 혹은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연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외부 사물들과의 우연적 만남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²⁸⁾. 그런데 스피노자 철학에서 질서, 연쇄 혹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관념을 생산한다. 각각의 관념은 그 관념에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스피노자가 『지성개선론』에서 관념의 ‘형상적 본질’(essentia formails)라고 부르고 있고, 『윤리학』에서 관념의 ‘형상적 존재’(esse formale)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지시한다²⁹⁾. 각 관념이 이렇게 역량을 표현하고 있는 한, 다른 관념들과 힘의 관계(rapport de forces) 속에 놓이게 된다. 관념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힘의 관계에 놓여 있는 한, 그것들은 체계모니적 힘에 의해 조직되는 특정한 질서 속에 놓이게 된다. 이 질서화하는 힘, 권력은 보편적인 원리로서 나타나는 한에서,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관념은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보편성은 관념들의 연쇄와 결합, 즉 그 힘들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27) 물체들의 운동과 생산을 설명하는 학이 물리학이라면, 동일한 논리로 스피노자에게는 ‘사유의 물리학’(la physique de la pensée)이 존재한다.

28)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질서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두 질서라기보다는 동일한 자연의 질서를 즉 사물들의 질서와 연쇄를 사고하는 두 관점이다.

29) Cf. TIE, § 33 이하; E, II, pr. 4. 두 번째 텍스트에서 스피노자는 관념들의 형상적 존재가 신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 즉 신의 사유 역량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모든 보편적 관념들이 이러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서의 공통관념(notio communis)³⁰⁾은 이러한 힘의 관계에 무관하게 형성되는 보편적인 관념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른 관념들과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체로 보편적인 힘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힘이 현실적인 보편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른 관념들과의 힘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듯이, 진리는 그것이 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적합한 관념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힘으로 전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공통관념이 공통적인 것을 표현하는 한에서 적합한 관념이지만, 그것이 통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념들과의 힘의 경쟁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힘의 관계를 통한 보편적인 관념의 형성을 특별히 상상적 보편관념의 경우에 한에서 설명한다³¹⁾.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스피노자가 공통관념을 힘의 관계에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가 공통관념을 힘의 관계를 통한 형성이라는 틀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보편적 힘은 그 관념에 내재적인 것이라는 점, 즉 '오직' 외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상과는 다르게, 공통관념의 보편성은 그 관념 자체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공통관념 또한 힘의 관계라는 일반적인 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관념인 한에서 특정한 힘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관념들과 힘의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스피노자에게서 하나의 관념은, 그것이 공통관념이든 상상적 관념이든, 다른 관념들 사이의 힘의 관계, 질서 하에 놓이게 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보편관념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모든 관념은 독특한 사물들에 의한 신체의 변용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그 관념을 통해 독특한 사물들을 사유하지만, 그 사유는 항상 보편성의 범주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스피노자는 보편관념의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한 직후에 상상을 제1종의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E II P40S2).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보편 관념들 중에는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그러한 관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념이다. 상상은 정의상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을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관념이다. 다시 말하면, 상상은 실존하는 외부 사물들이 우리 신체에 가한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상이 표상하는 바대로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신은 이 상상에 의해 대부분 지배되고 있다.

30) 사물들에 공통적인 것에 대한 관념으로 정의되는 공통관념에 대한 설명은 지면관계상 여기에서 자세히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통관념은 사물들의 공통적 법칙에 대한 관념을 지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공통관념을 이성의 토대라고 말하고 있다 (E II, P44 Cor2 D).

31) 스피노자는 이 주석에서, 보편적인 관념으로서의 상상이 이미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통해서, 즉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헤게모니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른 이미지들을 통합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참고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피노자는 상상을 신체의 변용, 즉 이미지에 대한 관념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관념이 필연적으로 연쇄를 함축하는 한, 상상은 보편 (혹은 일반) 관념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 정리 40, 주석 1에서 부적합한 보편 관념의 생성 메커니즘을 설명한 뒤, 곧바로 주석 2에서 그것을 요약하면서 이러한 보편적인 관념을 상상으로 명명한다.

지성 혹은 이성의 산물로서의 보편적 관념 중에서도 실존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 첫째, 이성의 존재ens rationis가 있다. 삼각형, 원 등과 같은 수학적 존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들은 정의상 물리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존하는 사물들에 대한 관념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앞에서 설명한 픽션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과학적 가설들, 예술적 구상들, 정치적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의 존재를 제외한다면, 상상과 픽션은 행위를 수반한다. 과학자는 자신이 세운 가정에 따라 실험을 하고, 예술가는 자신의 구상에 따라 작품을 만들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행위한다. 그리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부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위해 노력한다. 즉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행위한다. 요컨대,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관념이 현실의 구성 원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윤리학』 1부, 정리 16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된다. 스피노자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수한 사물들이 무수한 방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는 이 독특한 사물들의 생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상상과 픽션은 하나의 답을 제공한다. 신은 곧 자연인 한에서, 따라서 신에 의한 사물들의 생산을 실존하는 사물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연의 자기생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물들의 상호작용은 상상과 픽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하고 인식하는 바대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5. 픽션과 자유

앞에서 우리는 픽션은 어떻게 생산되는가의 문제를 논리적 차원에서, 즉 관념들의 연쇄로서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실천적 차원에서, 즉 생산의 주체는 어떤 주체인가 하는 문제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신학정치론』의 마지막장으로부터 출발할 것인데, 그 이유는 스피노자가 거기에서 개인들의 자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피노자가 이 저작을 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고의 자유와 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였다³²⁾. 『신학정치론』의 마지막 장은 이 자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장에서 스피노자는 명시적으로 자유를 과학과 예술의 발전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관에 대한 검토는 픽션의 원천으로서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왜 개인들에게 사유의 자유와 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하는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거기에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소극적인 이유는 말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흠즈는 오직 의식만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라고 간주했던 반면, 스피노자는 언어까지를 포함시킨다. 요컨대, 스피노자가 보기에 언어 또한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³³⁾ (E III P2S). 따라서 스피노자가 국가가 개인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 요구를

32) 스피노자는 「편지 30, 올덴부르크에게」에서, 자신이 『신학정치론』을 쓰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사람들을 철학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신학자들의 편견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스피노자 자신을 무신론자로 비난하는 우중들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철학하는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33) “풍부한 경험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참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자신들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E III P2S).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근원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³⁴). 인류가 역사에서 겪은 모든 격동들은 견해의 다양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자유의 부재이지 그것의 과잉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국가에 위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유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욕구들처럼 결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장점과 덕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는 “예를 들면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아주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예술은 판단이 자유롭고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TTP XX).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면, 과학과 예술은 인간 본성을 보다 완전하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 (TTP XX). 이렇게 자유와 과학 및 예술 사이에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성립한다.

스피노자는 정치에 관한 자신의 저작들에서 국가에서의 개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피노자 국가론의 목표는, 지도자들이나 신민들의 자질에 관계없이 어떻게 국가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렇지만 스피노자 철학 체계 내에서 국가에서의 ‘자유로운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단초와 그에 대한 답을 『윤리학』 4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4부의 마지막 정리에서 이성³⁶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보다 국가에서 더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성의 인도 하에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공통의 삶의 규칙들과 공통의 유용성을 따르려는 노력 외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성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인간은 다른 사람들 또한 이성의 인도 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윤리학』 4부, 부록, 9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독특한 사물들 가운데 이성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기예(ars)와 기질(ingenium)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유한 이성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더 잘 보여줄 수 없다.

요컨대, 자유로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성³⁶에 의해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기예와 기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예와 기질

34) “모든 것을 법을 통해 결정하려는 자는 [인간의] 결점들을 교정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신학정치론』, 20장).

35) 홉즈에게서 주권자의 의지에 대한 복종은 덕목으로서, 진정한 자유로서 제시된다. 이것은 마치 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에 대한 종속과는 다르게, 사회 질서에 대한 종속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덕목이 된다 (*Léviathan*, chap. 21 참조). 이는 결국 홉즈에게서 국가의 보존은 신민들의 덕목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상드르 마트롱은 『정치론』, 1장, 문단 1에서 스피노자가 비판하고 있는 도덕 철학자들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토마스 모어뿐만 아니라 홉즈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A. Matheron(1978), *Spinoza et la décomposition politique thomiste: machiavélisme et utopie*, *Archivio di Filosofia*, Roma, 29-59, repris dans *Anthropologie et politique au XVIIème siècle* (Etudes sur Spinoza), Paris: Vrin-reprises, 1986).

의 표현중의 하나가 픽션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서 기예와 기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천을 갖는다. 합리적 인식과 오랜 경험이 그것이다. 스피노자가 추론의 기술(kunst van reeden), 혹은 신체를 보살피는 기술(qua arte corpus sit curandum)을 말할 때³⁶⁾, 이 기술들은 논리학적 인식이나 신체에 대한 의학적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예는 오랜 경험으로부터도 나온다. 예를 들면, 인간의 악을 막는 정치가들의 기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오랜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현실에서 인식과 경험의 이 두 원천은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예는 어느 하나만의 산물이 아니라, 둘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표현으로서의 과학적, 예술적 및 정치적 픽션의 원천은 이처럼 자의적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식과 오랜 경험으로부터 오는 구체적 사물들에 대한 구체적 인식, 즉 숙련성(l'habileté)에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스피노자에게 새로운 관념의 생산으로서의 픽션은 타고난 능력으로서의 천재성이나, 돌출 혹은 파열로서의 사건(l'événement)에 민감한 분열증적 주체의 감수성이나, 전사(le militant)의 사건에 대한 충실성(la fidélité)에 기초해 있다기보다는 도야된 혹은 숙련된 주체(le sujet formé ou habile)의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³⁸⁾. 한 사물에 대한 역사적 혹은 계보학적 인식은 그 사물의 구성조건에 대한 인식임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픽션은 사물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6. 결론

모든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 원리는 가능과 우연을 인식의 결핍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인식의 결핍이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로 부적합한 관념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우연과 가능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분하게 주어지는 사유의 지평이기 때문이다. 픽션은 바로 이 우연과 가능의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역량의 표현으로서, 인간에게 고유한 지성의 활동이다.

우리는 먼저 픽션의 문제를 고유하게 다루고 『지성개선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스피노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픽션을 ‘자의적 창조’로 바라보는 통속적 이해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스피노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의적 창조라고

36) 『소론』, 2부, 1장, 3문단(G I, 55)과 『윤리학』, 5부, 서문 참조.

37) “정치가들은, 오랜 경험이 가르치고 있는 기예들 - 이 기예들은 이성보다는 공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기예들이다 - 을 통해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론』, 1장, 문단 2). 여기에서 기예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기예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평화와 전쟁의 기술들”을 말할 때가 그러하다 (『정치론』, 6장, 문단 7).

38) 우리는 여기서 스피노자를, 천재성(la génie) 혹은 영감(l'inspiration) 개념을 비판하면서 예술가의 그치질 모르는 노동의 산물로서 예술적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니체(F. Nietzsche(1968), *Humain, trop humain*, I, § 55, Textes et variantes établis par G. Colli et M. Montinari, Traduites de l'allemand par Robert Rovini, Paris: Gallimard, 123-24)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역사적이고 계보학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경계들이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것에서 주체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푸코(M. Foucault(1994), “Qu'est-ce que les lumières?”, in *Dits et écrits*, IV, Paris: Gallimard, 562-584)와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픽션은 '사실은' 사물들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기초해 있는 지성적 활동임을 보여 준다. 요컨대 스피노자의 목표는 픽션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픽션의 정확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두 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윤리학』에서 픽션은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정확한 위상을 획득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이라는 점에서 픽션은 상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물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스피노자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말해질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는 과학과 예술의 기초를 이루며,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간은 바로 이 과학과 예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활동을 특징짓는 픽션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와 역량을 표현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1. 스피노자, 데카르트, 홉즈의 저작

Spinoza Opera, Im Auftrag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erausgegeben von Karl Gebhardt,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925.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edited and translated by Edwin Curley, volume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Spinoza, *Oeuvres*, E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Pierre-François Moreau, vol. III,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Traité théologico-politique*, Texte établi par Fokke Akkerman, traduction et notes par Jacqueline Lagrée et Pierre-François Moreau, Paris: PUF, 1999; vol. V, *Tractatus politicus/Traité politique*, Texte établi par Omero Proietti, traduction, introduction, notes, glossaires, index et bibliographie par Charles Ramond, Paris: PUF, 2005.

Spinoza,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établissement du texte, traduction et commentaires par B. Rousset, Paris: J. Vrin, 1992.

Oeuvres de Descartes, publiées par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nouvelle présentation par Bernard Rochot et Pierre Costabel, 11 vols., Paris: Vrin-CNRS, 1964-74.

Hobbes, Thomas, *Léviathan*, Introduction, traduction et notes de François Tricaud, Paris: Editions Sirey, 1971.

Hobbes, *Les questions concernant la liberté, la nécessité et le hasard*, trad, par L. Foisneau et F. Perronin, Paris: Vrin, 1999.

2. 2차 문헌

Bennett, J.(1986), Spinoza sur l'erreur, *Studia Spinozana*, 2, 197-217.

Foucault, M.(1994), "Qu'est-ce que les lumières?", in *Dits et écrits*, IV, Paris: Gallimard.

Matheron, A.(1978), Spinoza et la décomposition politique thomiste: machiavelisme et utopie, *Archivio di Filosofia*, Roma, 29-59, repris dans *Anthropologie et politique au XVIIème siècle* (Etudes sur Spinoza), Paris: Vrin-reprises, 1986.

Mignini, F.(1979), Per la datazione e l'interpretazione del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di Spinoza, in *La Cultura*, anno xvii, 87-160.

Moreau, P.(1994), *Spinoza. L'expérience et l'éternité*, Paris: PUF.

Nietzsche, F.(1968), *Humain, trop humain*, I, Textes et variantes établis par G. Colli et M. Montinari, Traduites de l'allemand par Robert Rovini, Paris: Gallimard.